

“사찰과 지역의 희망공동체로 가꿔가요”

전북 대표 불교축제 선운문화제, 9월 19일 성료

붉은 꽃무릇이 온 산하를 붉게 물들인 가운데 전북지역 최대 불교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가 9월 19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희망’을 주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역대 최대 관객인 2만여 명이 찾았다.

이날 대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희망’을 주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역대 최대 관객인 2만여 명이 찾았다.

특히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으로 알려진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 칠층대에서는 12일 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미륵대제 입재식이 열렸다. 도솔암은 2018년 6월까지 1천 일간 33계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운사 경내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도 마련됐다.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에서는 각종

도솔암 미륵대제, 보은염 이운식 백미 산사음악회... 2천명 매료 역대 최다인 2만여 명 찾아

만장을 앞세운 군산연고, 고창고 파라마타 학생들과 불자들이 참여했다. 대중들은 108개의 경판을 머리에 이고 선운사 성보 박물관, 일주문, 천왕문을 거쳐 대웅보전에 경판을 봉안했다.

이운식에 동참한 박정자(인천시) 씨는 “그 동안 신행생활을 이어왔지만 오늘과 같이 환희심 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선운사에서 경판이운식 동참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 보은염 이운식도 진행됐다. 선운사 보은염 이운식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줘 생계를 잇게 한데서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이 검단선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행사다. 천일염 대신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선운문화제가 9월 19일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석씨원류 경판 이운식 장면

고창 사들마을 주민들은 올해 생산한 소금을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땅거미가 드리우는 저녁 무렵에는 선운사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축제 백미인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선운사를 찾은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산사음악회는 김이곤 음악감독의 사회로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김보경, 지미브라더스가 출연해 대중들과 호흡했다. 또 석악가 김성록과 로엔틱 앙상블도 나서 주옥같은 멜로디의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이밖에 선운사 일대에서는 꽃 무릇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선운사 신도회는 고창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눔장터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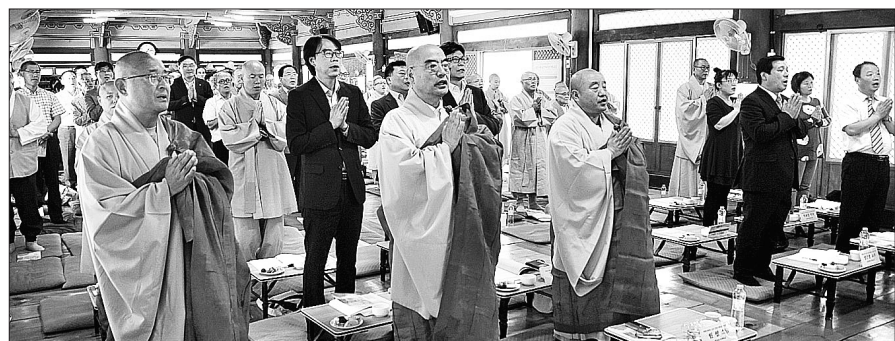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모든 중생이 함께 더불어 사는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며 “선운문화제에 함께해준 모든 대중들이 하나의 희망을 가꾸고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 석상암은 이번 축제를 맞아 석상미술관을 개관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석상미술관은 송담 스님의 휘호를 비롯해 석정스님 등 역대 조사스님들의 휘호가 전시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가 수호 스님들의 모습 되새기자”

금산사, ‘조선시대 금산사 역사와 고승’ 세미나 열어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정인)과 세계종교평화협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9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승원 스님의 사회로 중앙승가대 총장 원형 스님, 세계종교평화협회 회장 성우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뇌록 처영과 금산사’를 주제로 한 제1부 행사에서는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뇌록 처영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상’,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뇌록 처영의 의승활동과 금산사’를 발표하고 한상길 동

국대 교수와 김방룡 총남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사격’을 주제로 열린 제2부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조선 중·후기 금산사의 사격 변화와 그 의미’,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조선 중기 금산사의 중창과 가람배치 변화’, 오경후 동국대 교수가 ‘조선 중·후기 금산사 선교점수 경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탁효정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원,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성우 스님은 “조선시대 국가수호를 위해 몸바쳐던 과거 스님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회갑여행 대신 군장병 위문한 불자들 ‘화제’

전주 금선암 신도, 9월 20일 호국 충경사 위문법회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잔치를 뒤로 하고 군 불자들을 위해 위문법회를 열어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회갑을 맞은 안중아(전주 금선암 신도회 총무) 불자 등 4명의 불자들은 9월 20일 회갑 잔치를 생략한 비용으로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을 방문해 위문 법회를 봉행했다.

이들 불자들은 주석을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병들이 잠시나마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500인분의 떡국을 장병들에게 대접했다.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도 이에 호응해 장병들을 위해 초코파이 100상자를 전달했다. 또 국악인 안선희씨를 초청해 간단한 위문공연도 펼쳤다.

이날 법회에서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매 주말 마다 법당을 찾아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군 복무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추고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 효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며 “오늘 금선암 불자들이 이 같은 법회를 여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금선암과 금선암 신도회는 매년 회갑을 맞은 불자들 중심으로 군 법당을 찾아 위문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홍사 초의문화제, 10월 16~17일 열어

한국차인들의 큰 잔치인 초의문화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해남 대홍사(주지 월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초의문화제는 조선 후기 선과 차의 세계가 하나라는 다산 일여 사상을 주창하며 쇠퇴해져 가던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행사 첫날은 대홍사 경내에서 지역 내 초·중학생들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 차 문화 체험’, ‘떡 차 만들기 체험 학습’, ‘다산과 초의가 함께한 차유적지

순례’ 등의 행사가 열린다. 이밖에 ‘다기·다구 및 해남특산물 전시·판매장’ 등도 운영된다.

두 번째 날에는 일지암에서 ‘초의선사에 게 올리는 헌다례’를 시작으로 떡차만들기 체험과 한다 시연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행다시연’과 먼저 가진 차인 108인을 추모하는 ‘선고다인 헌다례’가 열리며, ‘24회 초의상’과 ‘차학술 논문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된다.

한편, 제24회 초의상 수상자는 김기원 경남과기대 명예교수(한국차학회 고문)가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생명나눔, 자선음악회 개최

소아암환우를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는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정기적인 음악회를 9월 20일 무등산 원효사 입구 ‘절로가는 길’에서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우리 주위에 난치병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주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행사는 홍보가 수 주권기, 유미라, 서지연 씨 등이 참여한



공연과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판매로 구성됐다. 판매대금은 전액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종단 봉사자, 300가구에 송편 전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맞이해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의 4대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고창 선운사 신도들을 비롯한 4대 종단 봉사자 60여 명은 9월 22일 고창여성회관 앞 마당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 스님을 비롯해 고창 중앙교회 전종찬목사, 원불교 양인경 교감, 고창성당 이성우 신부 등 4대 종단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선운사에서는 선제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준비한 명절음식은 고창군 관내



300가구에 햅쌀과 송편 등과 함께 전달됐다. 경주 스님은 “앞으로 선운사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주사, 9월 숲속 힐링법회 봉행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9월 20일 ‘9월 숲속 힐링법회’를 봉행했다. 200여 힐링법회 참가자들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속리산 자락의 숲길을 걷는 명상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특히 힐링호흡을 통해 치유했다.

현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흔적조차 없

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공연히 망상에 젖지 말고 오직 지금,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이어 “‘성품’은 타고난 본성에 가까운 것이지만 ‘품성’은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수행과 정진, 보시행을 실천해 좋은 품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 12cm X 세로 5.7cm X 두께 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이달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새 깨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기쁨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엄 염불
- 10. 찬불가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가
- 13. 사랑을 쏟을 때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다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리면
- 19. 나의 과실을 푸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정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장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정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참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시종서경
- 43. 신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김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상도도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심정명분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늘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게 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꿀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